



‘금어초, 금잔화, 팬지, 패랭이꽃, 물망초 씨앗을 화분이나
술단지, 독뚜껑 등에 심어 가을을 가꾸는 마음을 기르자—’

여름내 봄내 앞마당에 흐드러지게
피었던 꽃들도 이내 저 버리는 가을
철이 접어 들면서 가을건이로 마당을
정리하고 나면 한결 삭막해지는 도심
의 생활을 가 일층 더 스산스럽게 만
든다.

조그만 시간을 내서 아무 곳이나
씨앗을 뿌린다든지 구근을 준비해서
심어 놓으면 봄아닌 새로운 봄을 만
끽할 수 있다. 먼저 가을에 심을 수
있는 씨앗을 준비한다.

씨앗으로 준비할 때 여름처럼 무더
운 날씨가 아니더라도 곱고 아름다운
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야
한다.

그 종류로는 “금어초, 금잔화, 팬
지, 패랭이꽃, 물망초.” 등의 씨앗
이 있는데 담근 용기로는 화분이라든
지 술단지 또는 금간 독뚜껑 등도 훌
륭한 용기가 될 수 있다.

요즘은 잘 쓰지 않는 항아리 등을
흙을 가득 담아서 마루 한구석이라든

‘구근을 고를 땐 알이 굵고 되도록이면 흠집이 없고 단단한 것을 골라야 한다. 물론 화분에 물을 담아서 길러도 좋지만 유리그릇이라든지 와인 그라스에 기르는 것도 한결 품위가 있고 고급(?)스러워 보인다’

지 창문가에 놔 두고 새록새록 돌아나는 짝을 보는 것도 도심 생활에서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운치이기도 하다.

더우기 금호초라든자 판지는 무더기로 그 예쁜 모습을 자랑하는 멋도 있고 한송이 한송이의 모양도 무척 아름답다. 9월 말경부터 10월 초순에 이르는 시기에 여름 꽃들을 정리하고 부엽토를 섞은 흙으로 다시 화분을 채워서 너무 깊이 씨를 뿌리지 말고 씨앗크기의 2~3배 정도 곱게 흙을 덮어 한 1주일 정도면 싹이 트인다.

10월쯤엔 하루 1번 정도의 물을 주지만 추운 겨울엔 한 2~3일에 한번 정도의 물을 주며 양지 바른 창문쪽에 물론 실내에서 곱게 키운다.

정성드려 잘 가꾸면 비싸게 돈주고 꽃을 사는 것보다 더 보람지고 귀여운 꽃들을 볼 수가 있다.

가을에 화분에 심는 것으로는 씨앗 말고도 구근이 더 멋있는 꽃들을 볼 수가 있다. 구근으로는 “크로커스, 콜치کم, 수선화, 튜우립, 아네모네, 히야신스, 무스카리” 등이 있는데 종묘상이나 꽃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.

구근을 고를땐 알이 굵고 되도록이면 흠집이 없고 단단한 것을 골라야 한다. 물론 화분에 흙을 담아서 길러도 좋지만 유리그릇이라든지 와인 그라스에 기르는 것도 한결 품위가 있고 고급(?)스러워 보인다. 유리그릇에 심을 땐 제일 밑에 숯을 조금 깔고 그위에 잔돌을 조금 깔고 그위에 이끼를 깔며 그 이끼에 구근을 이끼로 곱게 싸서 분무기 같은 걸로 곱게 물을 준다.

너무 물을 많이 주거나 하면 더 좋지 않다. 그외에 또 집에서 쓰다만 바구니에 유리그릇에처럼 이끼를 깔아서 구근을 키워도 멋이 있다.

화분이나 나무상자에 구근을 심을 때엔 너무 깊이 심지 말도록 해야 한다. 씨앗이나 구근이외에도 숙근 화초도 잘 키워 놓으면 좋다. 숙근 화초로는 “카야베라, 아이리스(꽃장포) 솔잎국화, 꽃잔디, 군자란, 은방울꽃(스스랑) 등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꺾꽂이나 포기가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꽃모양이라든지 쉽게 자랄 수 있는 생김새는 참 좋다.

그외에 그냥 모래에 심어 며칠씩 물관리를 안해도 잘 사는 선인장도

유리그릇이라든지 나무 함지 같은데
 심어서 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다.

집에서 더구나 가을부터 겨울사이
 에 자그마하나 꽃을 키

운다는 것은 첫째

열지 않도록 하

며 짧은 낮시

간에 충분히

햇빛을 볼

수 있게

창가에 두

도록 하

는 것도

문제이고

너무 적게

나 너무 많

이 물을 주는

것도 아닌, 알

맞게 그 방안의

기온에 따라 적절히

물을 주어야 한다. 그리고

마당 한구석에 깨묵을 묻어 두었다

조금씩 화분가에 뿌려 주는 것도

중요하다.

꼭 꽃만이 아닌 싱싱한 푸르름을
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. 겨울
 이면 많이 나는 왕겨를 과일점 같은
 데서 얻어다가 새카맣게 태운 “훈탕”
 이란 것을 만들어서 소쿠리라든지 화
 분에 널찍히 담아 놓고 그위에 열무
 나 상추씨를 뿌려 놓으면 한 2~3일
 사이에 새파랗게 새싹이 돌아난다.

한 5cm 정도 넘으면 뽑아서 결절이
 도 해 먹고 된장찌개에도 넣어 먹으
 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공해식품의
 신선한 맛을 만끽할 수 있어서 일거
 양득이 아닐 수 없다.

하다못해 콩나물

100~200 원어치

사오드라도 조

금 추려서

컵에 담아

놓는다든

지 고구

마 한개

덜 먹고

화분에

심어 놓아

도 꼭 시골

에 가야 보

는 고구마의 싱

싱한 잎도 실컷 볼

수가 있어서 좋다.

꼭 비싸게 들여서만이 푸르
 림을 겨울에 즐길 수 있는 것만도 아
 니란 생각이 든다.

